

## 춤의 공공성 실천 가능성

한석진 \*

김채현(2019). 『뿌리깊은나무 샘이깊은물 1』(서울: 춤북넷).

예술과 공공성은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는 관계로 보이는 동시에 반대로 매우 자연스럽게 해명이 필요하지 않은 관계로도 보인다. 공적 지원을 받는 예술가에게 공동체의 이익 및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예술은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이며 그렇기에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향유함으로써 세상을 변혁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이것은 좋은 예술은 근본적으로 공공성을 실현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뿌리깊은나무 샘이깊은물 1』은 예술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힘에 대한 신념을 전제로 한다.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를 고찰하기 보다는 예술 그리고 춤은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또한 예술이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 사상적 변화를 주창한다. 책에 수록된 글들은 저자인 춤비평가 김채현이 최근 연재로 기고한 원고들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이 책은 저자의 이전 저작물들과 조금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저자가 정년퇴임을 한 해에 발간된 책이기 때문이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1986년 첫 비평문을 기고한 이래로 언어를 통해, 그리고 1992년 첫 카메라를 구입한 이래로 영상을 통해 한국 춤계의 현대사를 기록해왔던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서문). 이는 곧 비평가로서 그리고 영상아키비스트로서 저자 자신이 구현하고자 했던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1-2편)와 춤아카이브의 구축 현황 및 기록 및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3편)로 이어졌다. 또한 공공성 실현을 가시적 목표로 설정하는 커뮤니티댄스를 규명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춤 활동으로서 커뮤니티댄스, 거리춤, 공공예술, 문화예술교육 사례 등을 소개한다(4-5편). 마지막으로 예술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가로막는 블랙리스트, 성폭력문제 등을 제기하고 사회적 이슈 속 예술의 의미, 위치, 역할을 검토한다(6-8편).

먼저 1편 ‘춤비평을 시작한 연유’에서 저자는 철학, 미학학도였던 자신이 춤계에 발을 딛게 된 연유는 미적경험에서 몸이 가진 의미에 대한 관심에서부터였다고 말한다. 『춤』지에서 첫 비평문을 쓴 이래로 몸소 경험한 80년대 춤계 현장에 대한 생생한 증언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한국 춤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2편 ‘인터뷰: 기록은 알파이자 오메가’는 여러 지면에서 발표된 저자 인터뷰 내용을 모은 것으로 영상 아키비스트로서의 활동과 신념을 담고 있다. 춤이 역사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기록이 토대가 되어야 하

1)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강사, jinnysjhan@gmail.com

며, 그것들이 선별되어 자료화될 때, 즉 비평가의 안목을 통해 집필된 자료들이 춤의 역사가 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최대한 객관적 태도, 논리적 근거, 역사의식을 가지고 비평에 임했으며, 이에 충실하기 위해서 작품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회고한다. 오랜 시간의 춤 기록 경험은 생동감을 포착하는 그만의 노하우를 만들었고 그렇게 찍은 자료들이 약 9천여 편쯤 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기록들이 한국 춤을 연구하고 평가하고 널리 향유되는데 기여하고자 영상자료 기증을 실천하고 있다. 1992년에 국립무용단과 국립발레단의 영상자료 70점을 국립극장에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500편 영상자료 및 공연 팸플릿 5,000여 점을 기증했다. 한국 춤을 연구하거나 향유하고 싶어도 자료의 부재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그의 이러한 행보는 춤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공유함으로써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미국 국립춤박물관에 대한 문화기술지적 기록으로 구성된 3편 ‘기록 현장: 백화제방의 샘물’은 박물관의 물리적 위치가 갖는 무용사적 의미, 건립 배경, 박물관의 구성 및 기획 등을 소개한다. 이어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자료를 선별, 해설, 전파하는 큐레이터 역할이 춤계에 필요한 인력임을 강조하면서 자료를 수집, 분류, 보존하는 아키비스트 인력 양성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앞의 1-3편이 춤 기록, 보존, 전파가 지니는 공공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다음의 4편 ‘춤·예술·공공성’과 5편 ‘춤·시민·표현’은 무용가가 공공성을 전면으로 내세워 실현하고자 했던 사례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자신이 몸담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의 2010년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커뮤니티댄스를 한국에 처음 소개한 이후로 그 분야의 이론화에 앞장서왔다.

4편은 커뮤니티댄스의 개념화 및 분류화로 시작한다. 일상에서의 춤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영국 중심으로 통용되고 있는 커뮤니티댄스 개념이 유용함을 말한다. 성별, 연령, 지역, 인종, 장애, 교육, 경제력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양질의 춤경험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커뮤니티댄스는 그 자체가 느슨한 개념이기에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양질의 춤경험이라는 표현 속에서 전문춤인력 또는 전문성을 가진 일반인의 참여가 필요로 하는 춤활동으로서 커뮤니티댄스로 제한을 둔다. 커뮤니티댄스를 신체와 정신의 뚜렷한 국소적 증세 치료를 목표로 하는 치료형, 신체와 정신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목표로 하는 치유형, 현장에서의 공감을 목표로 하는 공감형, 일반인의 참여를 목표로 하는 확장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카테고리 속 실제 사례를 제시한다. 저자가 언급하듯이, 치료형 커뮤니티댄스를 댄스테라피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축제춤, 교육춤, 동호회춤이 모두 확장형 커뮤니티댄스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조성되는 커뮤니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커뮤니티댄스의 모호한 경계는 또다른 경우에서도 등장한다. 저자는 공감형 커뮤니티댄스 사례로 스테판 코플로위츠(Stephan Koplowitz)의 <창틀내기(Fenestrations)> (1987)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무용수들에 의해 진행되는 장소특정형 공연인 이 작품을 커뮤니티댄스로 볼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탐독하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한다. 커뮤니티댄스의 개념과 범주를 분명하게 경계 짓기 힘들듯이, 커뮤니티댄스의 분류화 작업에서도 저자는 광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4편의 첫 번째 글을 제외하고 5편에 걸쳐 커뮤니티댄스를 포함하여 공공성을 실천하는 춤사례들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설명한다. 1990년대 산업구조조정으로 폐허가 된 브루클린을 춤축제, 공연,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마사 바워스(Matha Bowers)가 설립한 댄스 씨어터 잇세

트라(Dance Theatre Etcetera), 폐교를 실험적 전위작업을 보여주는 극장으로 탈바꿈한 퍼포먼스 스페이스 뉴욕(Performance Space New York), 9.11 테러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광선 조명을 비추는 조형물 <빛의 헌정>을 기획, 제작한 크리에이티브 타임(Creative Time), 불모지였던 뉴욕의 브롱스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례 행사를 진행하는 브롱스 예술·춤아카데미(Bronx Academy of Arts and Dance), ‘잇즈 쇼타임 뉴욕시티(It’s Showtime NYC)’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철에서의 불법 춤공연을 공공예술로 탈바꿈시킨 댄싱인더스트리트(Dancing in the Streets), 칠레의 피노체트 군부 독재시기에 실종된 사람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추는 쿠에카솔라(cueca sola), 한 남성이 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셸 위 댄스>와 <빌리 엘리어트>, 교도소 내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춤 교정 프로그램, 안나 헨프린이 제안하는 자연 및 생명과 관련한 춤 행위를 통한 치유 경험,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체제의 선전도구로 이용된 춤 작품들, 장소춤을 통해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일상의 삶 속 관객과 마주하고자 했던 스테판 코플로위츠, 장애인 참여자들에게 다매체를 활용하여 치유적, 주제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던 페트라 쿠퍼스, 52년간 내전의 결과 범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살아야 하는 콜롬비아 시민에게 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알바로 레스트레포(Álvaro Restrepo)의 ‘몸의 학교(Colegio del Cuerpo)’를 조명한다.

6편 ‘사회 이슈 돋보기’는 예술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을 다룸으로써 사회문화 속 예술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한다. 3.1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자주독립운동이 한국문화예술에 의미하는 바에 주목하고 한국예술인의 해외 활동을 장려를 위한 국제예술교류진흥기금(가칭)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또한 예술활동이 정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종속되길 원했던 블랙리스트 사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로 예술을 바라보았던 마가렛 대처 시대, 그리고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사회 속 만연한 성차별 및 성폭력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룬다.

7편과 8편은 춤과 연관성 여부를 떠나 저자의 개인 삶과 관심사를 그대로 반영한 부록과 같은 내용이다. 7편 ‘책 함께 읽기’는 그동안의 저자가 쓴 서평을 모아서 소개하는데 저자의 관심사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며, 8편 ‘젠트리피케이션은 심각하다’는 40년간 살고 있는 홍대앞 주민으로서 저자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글이다.

앞서 주지했듯이, 이 책은 기존에 연재된 글들과 인터뷰 기사들을 모아 구성되었다. 그렇기에 예술의 공공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나 글들의 연계성이나 문체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대부분의 글들이 기사화를 위해 짧은 분량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독자로 하여금 학술적이고 깊이있는 논의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지적 목마름을 느끼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커뮤니티댄스가 널리 보급되고 고등교육 내 교과목으로 다수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다소 남발되거나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커뮤니티댄스의 개념화 및 분류화를 통해서 그것의 정의를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현장감 있는 글 속에서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춤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영미권의 작업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실천가, 교육자, 이론가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무용의 영상매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언택트 시대에 극장 경험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춤 관람뿐만 아니라 무용을 향유하는 확장된 방식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상기록 아카이빙의 활용한 다양한 큐레이팅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영상자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30

년간의 무용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언어와 영상을 통해 한국춤 현대사의 토대자료를 구축해온 김채현 선생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www.kci.go.kr](http://www.kci.go.kr)